

# 건협·전북자치도, 건설산업 발전방안 논의

### 서남권 해상풍력 2단계 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 건의 등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등 15일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등 15일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김관영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전북도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의 민간 발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 분할 및 SFC 구성시 지역기업 참여비율을 30%

또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도 차원에서 조립아파트 또는 신규 분양 아파트 건설시 도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등 행정 제도 개선 및 전북도에서 발주되는 지역공사에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안전과 품질이 우선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가 남이 지역 중소기업체를 많이 배려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역의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재철 건협 전북자치도회 회장은 "지역경제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립 건설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 마련을 재추진하고,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 극소수 업체만 참여하기에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공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 1억원 수해 복구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애로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와 만남도 가지고 사전 예고제,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 등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도에서도 운영 중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나 고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과 용동면 수박 재배단지 지를 방문해 피해복구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지원을 펼쳤다.

## 농진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 돕기

### 익산시 용안면 찾아 수박 재배단지 수해 복구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1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과 용동면 수박 재배단지를 방문해 피해복구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지원을 펼쳤다.

농촌진흥청,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등 직원 30여 명은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수박 시설하우스(8동, 0.5헥타르) 내부의 농작물 잔해를 치우고 파손된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 등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또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인 소숙 병해충, 작물(수박), 토양, 방제 분야 전문가들은 인근 익

산시 용동면 수박 농가(0.3헥타르)를 찾아 생육 촉진 양분 투입, 병해충 예방법 등 농가별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섰다.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농촌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지원, 농산물 팔아주기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또는 농업시설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소상공인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전북도와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민생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은행 전북본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지방중소기업 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저금리 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한국은행 채희권 전북본부장,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 전북' 함께 도약 특별보증 대출 지원대상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전북자치도 소재 사업장으로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59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8억 8천만 원, 대출 기간은 1년 만기일시 상환(대출 취급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상반기까지 총 42억 원의 특별대출을 하였으며, 이는 도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지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농어촌공, 국내 농기자재 해외수출 590만 달러 협약 체결

###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수출 판로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기업 30개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3건이 체결되었다. 주요 협약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종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난 4월 열린 'K-FOOD+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760만 달러의 성과에 이어 큰 규모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농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하고,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해외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해외기업 역시 "오랜 기간 쌀, 포도 등 한국

농산물을 수입·유통해 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10월 31일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도 '농기계·시설자재 품목의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한화투자증권 연계제휴 서비스 이벤트 '지금 모해!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북은행 속뱅크를 통해 주식매매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모(바)일 주식매매서비스 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전은 속뱅크를 통해 주식매매 서비스에 가입, 한화투자증권과 이체 실적 1회 이상, 증권을 연계한 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 10만 원을 유지한 경우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요기요 5천 원) 2매를 지급하며 이벤트 추첨 시 이벤트 대상 계좌가 해지된 고객은 제외된다.

현재 전북은행 속뱅크를 통해 제휴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주식매매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속뱅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당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및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일손돕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5일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긴급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최고 342mm 강수량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접수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완주군은 평균 강수량 183mm 기록하면서 농업시설물 및 마을 시설 일대가 빗물에 잠겨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범농협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운주면 일대 침수지역의 시설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고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회원 및 재해현장 클린봉사단 30여명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재난극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침수된 농가의 내부 청소 및 가재도구 정화활동 등 침수지역 복구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시군별 피해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



전북농협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긴급 재해복구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및 외부기관 임직원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재해복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로 농업인들의 상심이 크며 '전북농협은 이번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